



NKSJ 산하 손보재팬과 니혼코아, 전국 영업망 40% 통합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대기업 손해보험 그룹인 NKSJ홀딩스 산하 손보재팬¹⁾과 니혼코아²⁾ 손해보험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각지의 영업 거점을 통합 추진하기로 함.

- 2014년 상반기 통합 완료 계획에 앞서 약 190개에 달하는 양사의 영업 거점 중 약 40%를 조기 축소·통합하여 합병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에 따른 것임.
 - 이번 합병으로 손보재팬과 니혼코아의 2011년 수입보험료는 약 1조 9,000억 엔을 기록해 동경 해상일동화재보험(1조 7,000억 엔)을 제치고 일본 손보시장 1위로 부상하게 됨.
- 이번 합병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동일본 대지진,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문제 등으로 보험회사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면서 서둘러진 것임.
 - 또한, 지난해 태국의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증가해 NKSJ의 FY2011 영업이익이 1,000억 엔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면서 경영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음.
 - 따라서 두 손보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중복 상품을 통합하고 중복된 업무 관리 부문을 슬림화하는 한편 인력채용을 일원화할 예정임.

■ 한편, 일본 손보업계는 저출산·고령화와 경제 침체 등으로 매출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수년간 업계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.

- 특히 대형사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M&A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동경해 상홀딩스와 MS&AD, NKSJ 등 3대 손해보험 그룹으로 압축됨.

1) 손보재팬은 2002년 야스다화재, 닛산화재, 대성화재가 합병한 회사로 2010년 말 기준 수입보험료가 1조 2,566억 엔(2위)이며, 생보사, 손보사, 온라인 자보사, 증권사를 비롯하여 24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임.

2) 니혼코아손해보험은 니혼화재와 코아화재, 타이요화재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합병한 회사로 2010년 말 기준 수입보험료가 6,206억 엔(5위)이며, 산하에 손보사와 생보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23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그룹임.

- 이 같은 합병을 통해 그룹 내 관계사 간 상품개발, 판매채널, 자산운용, 고객정보, 해외시장 정보 등의 경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임.
- 한편, 성장 전망이 좋은 중국시장을 비롯한 인도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확보, 보험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 - 특히 이들 국가들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, 자동차보험 확대가 주목적임.
 - 이를 위해 보험회사 인수 및 현지법인에 대한 증자, 현지 판매망 인수 등 사업 확장을 추진 중임.

(니케이 외, 7/17)